

2021년 5월 9일(1104호)	부활 제6주일	미 사 시 간	
사 무 실: 286-0577 주임신부: 김용민(레오나르도) 전교수녀: 허비비안나 사목회장: 장병련(가밀로) 연령회장: 이태복(요한) (010-3540-5040)	양 곡 성 당 주 보	평일미사	월,수,금:오전10시 화,목 : 저녁7시30
주일미사		특전(토): 저녁6시	
		오전미사: 9시	
		교중미사: 10시30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셉 성인의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선포 150주년 기념

7.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

폴란드 작가 얀 도브라친스키는 저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하여 소설 형태로 요셉 성인의 삶을 전 하였습니다. 저자는 그림자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요셉을 정의하였습니다.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 계에서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보호하며 예수님께 서 혼자 길을 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너희는 마치 사 람이 제 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서 졸곤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요셉은 살아가면서 부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아 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코린토 신자들에 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시의적절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 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신부와 주교는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 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삶의 경험과 현실을 접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재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요셉을 전통적으로 가장 순수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그저 사랑의 표징이 아니라 소유와는 반대되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의 종합입니다. 순수함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유로부 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순수할 때에만 참된 사랑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랑은 결국 언제나 위 험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옥죄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셨 습니다. < 계 속 >

♣전례 봉사자 안내

일 자	아침미사		교중미사		미사안내
	해설	독서	해설	독서	
5월 9일 (부활 제6주일)	송명옥 (돌로레스)	박희규(요한) 조경아(아마다)	박진태 (스테파노)	강신용(베드로) 최춘이(요안나)	천상의모후 pr.
5월 16일 (주님승천대축일)	송명옥 (돌로레스)	박희규(요한) 조경아(아마다)	전혜주 (모니카)	박진태(스테파노) 김미선(글라라)	순결하신 모후Pr.

♣우리들의 정성

지난주 미사참례수	교무금	주일헌금
88명	1,728,000	548,000

♣반별청소안내

일자	반구역	일자	반구역
5월15일	1구역1반	5월22일	1구역2반

♣세대별 교무금 납입(5/1~ 5/7) 16명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김명선	5	박근택	5	전효진	5	이태길	5	김혜라	5	강대명	5	강신용	5
최영철	4	정의영	5	신일광	5	이무희	4	이정숙	4	정희자	6	박지선	5
배종천	5	홍명자	5										

공 지 사 항

■미사시간 변경안내: (5월9일 주일부터)

◆주일 새벽미사 6시30분 → 주일 오전9시 미사로 변경됩니다.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5월 9일(일) 미사 후 만70세 이상 어르신께 선물 드립니다.

■성모의 밤: 5월 25일(화) 저녁8시

◆5/9일 교중미사후 성모의밤 예식 위한 성모상 세척 및 주변정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동참

◆백신 나눔을 위한 2차헌금: 5월16일(주님 승천 대축일)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바치기

◆5월 한달 미사 후 성모당 앞에서 묵주기도 바칩니다. (토요일, 주일은 제외).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성지순례

◆기간: 5월2일(주일) ~ 11월27일(토) 희년 폐막일

◆전대사 수여200주년 희년 순례지, 순교복자 성지 및 묘지

◆순례참여: 순례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도문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주모경을 바침

◆자세한 내용 5/2일자 교구보 참조

■코로나19 감염 예방지침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미사 참석자 명단작성,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청 신립기금 납입: 1세대당 1년치 교무금 납부(분할 납부가능)

◆유기년(바드라시아), 주미희(아네스), 조부자(세레나), 배종천(프란치스코)

■본당청소(3구역2반):

◆김출선(카타리나), 빈영희(엘리사벳), 김경희(데레사), 양지미(유스티나), 이현주(글라라), 이수정(요안나) 6분이 수고 하셨습니다.